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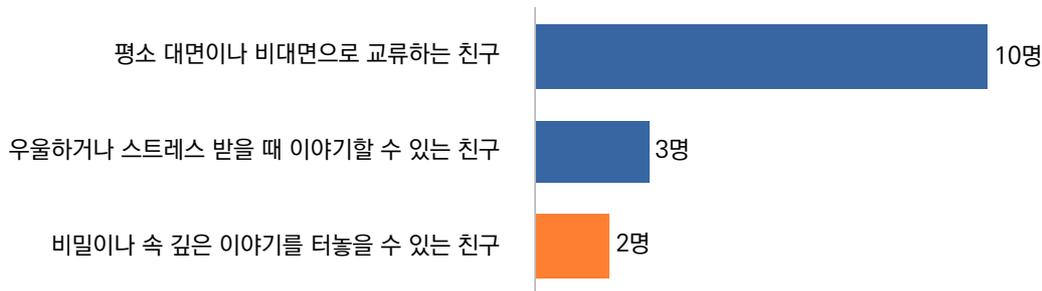


[한국인의 인간관계]

한국인, 속 깊은 이야기 터놓을 수 있는 친구, 2명!

- ‘인간은 사회적인 동물’이라는 말처럼,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친구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. 개인주의가 늘 어남에 따라 인간관계가 느슨해진다는 우려와 함께 비대면(메신저, SNS)으로 교류하는 친교 방식은 더 확장되고 있다. 우리 국민의 인간관계 실태와 관계 맺는 성향을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(한국리서치)를 통해 알아본다.
- 우리 국민이 평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친구의 수는 평균 10명으로 나타났으며, 그중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는 3명, 비밀이나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.

[그림] 유형별 친구 수 (일반 국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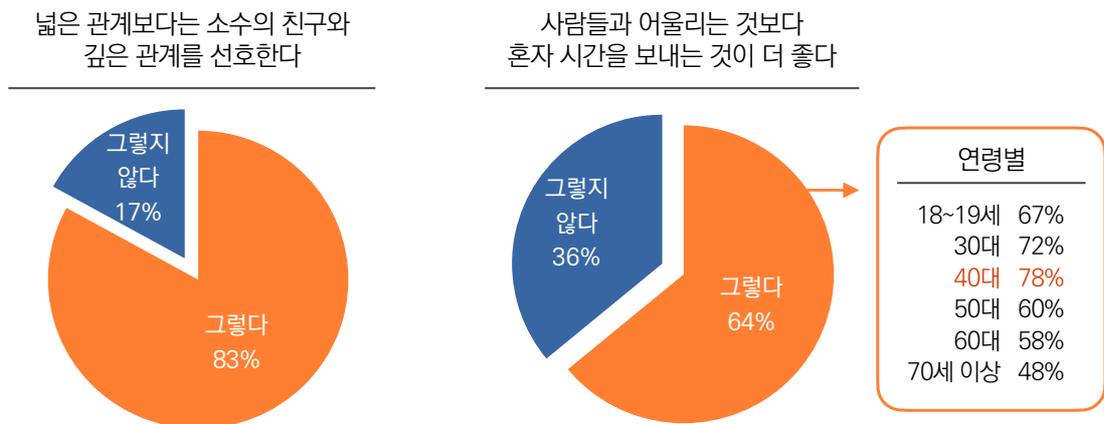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속의 여론, ‘인간관계의 형태와 스타일’, 2024.11.27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10.11.~10.14.)

넓은 관계보다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 선호 83%!

- 인간관계에서 양이 중요할까 질이 중요할까?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(83%) 많은 사람과 ‘넓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선호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한 ‘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’는 응답이 64%로 3명 중 2명꼴에 해당했다. ‘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’는 응답은 40대가 78%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후로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인간관계 스타일* (일반 국민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속의 여론, ‘인간관계의 형태와 스타일’, 2024.11.27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10.11.~10.14.)

*4점 척도